

# 2026년 FAO 세계 식량시장 동향 및 전망

오 민 혜\*

## 1. 육류 및 육류제품(Meat and meat products)

### 1.1. 국제 육류 가격 상승세 지속

FAO 육류가격지수(FAO Meat Price Index, FMPI)는 2026년 5월 평균 130.5포인트를 기록하여 2026년 1월 대비 4.5%,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 2026년 1~5월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가격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품목별 수급 여건에 따라 상승폭에는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쇠고기 가격은 5.8% 상승하여 주요 육류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브라질에서 도축 가능한 소의 공급 감소로 수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국내 공급이 부족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이어지면서 국제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3년간의 셰이프가드 체계에 따른 수입 할당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구매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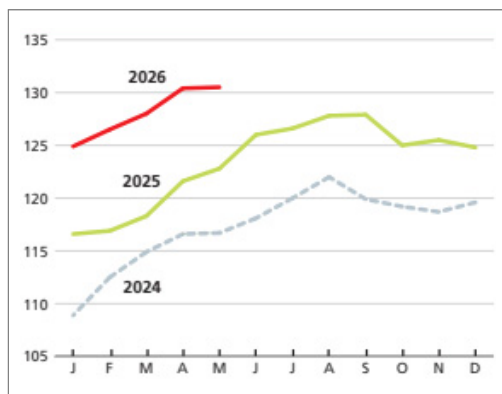
돼지고기 가격은 같은 기간 5.2% 상승하였다. 연초에는 EU의 수요 부진과 충분한 공급, 연말 연휴 기간에 누적된 도축 지연 물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적체 물량이 점차 해소되면서 가격이 반등하였다. 다만 2025년 말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제한되었다. 양고기 가격은 3.6% 상승하였다. 주요 수출지역인 오세아니아에서 양떼 규모가 줄어들고 도축 가능한 물량도 감소하면서 수출 가능 물량이 제한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가금육 가격은 1.4% 상승하여 다른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 Virginia Tech, 농업 및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생(minhyeoh@vt.edu).

본고는 UN-FAO가 2026년 6월 발간한 보고서 "Food Outlook: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중 제1장 (Markets at a glance)과 제2장(Market assessments)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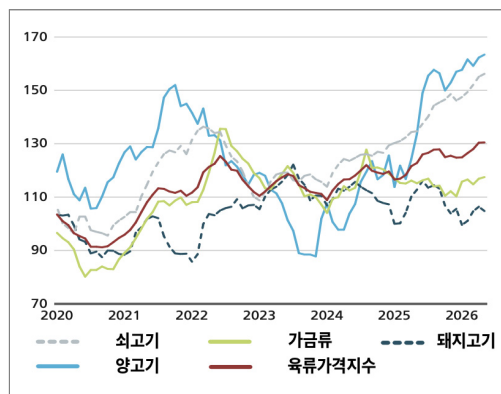
기록하였다.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충분한 공급이 가격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의 구매 증가가 근동 지역으로의 판매 감소를 일부 상쇄하였으며, 근동 지역에서는 분쟁에 따른 물류 제약으로 교역에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1〉 FAO 월별 육류 가격지수  
(기준년도: 2014~2016년 평균)



자료: FAO(2026: 35).

〈그림 2〉 FAO 월별 육류 국제가격지수  
(기준년도: 2014~2016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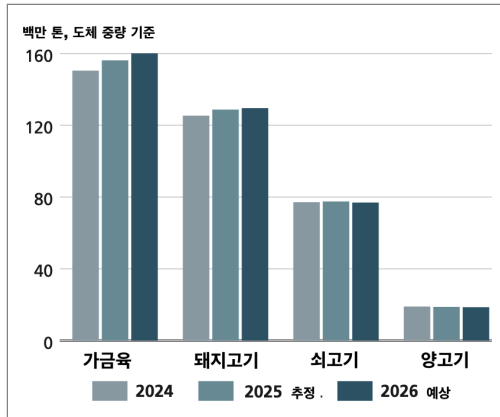
자료: FAO(2026: 35).

## 1.2. 2026년 세계 육류 생산 증가세 둔화 전망

2026년 세계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억 9,130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금육 생산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전체 육류 생산 증가를 주도하고, 돼지고기 생산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쇠고기와 양고기 생산은 각각 0.8% 감소할 전망이다(〈그림 3〉 참조). 가금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따른 높은 세계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산자들이 생산량 확대보다는 수익성 유지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생산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근동 지역의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비료 공급 차질은 사료를 포함한 생산비를 높여 생산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가축 질병 역시 세계 육류 생산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돼지고기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특히 SAT1 혈청형이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돼지와 소, 소형 반추동물 생산에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림 3〉 품목별 세계 육류 생산량



자료: FAO(2026: 36).

〈그림 4〉 FAO 육류 및 사료 가격지수  
(기준년도: 2014~2016년 평균)



자료: FAO(2026: 36).

〈표 1〉 세계 육류시장 주요 지표

| 구분               | 2024  | 2025 추정 | 2026 전망 | 2025년 대비 변화 |
|------------------|-------|---------|---------|-------------|
| 백만 톤(도체 중량 기준)   |       |         |         | %           |
| <b>세계 수급</b>     |       |         |         |             |
| <b>세계 육류 생산량</b> | 378.0 | 387.3   | 391.3   | 1.0         |
| 쇠고기              | 77.2  | 77.5    | 76.9    | -0.8        |
| 가금육              | 150.5 | 156.3   | 160.3   | 2.5         |
| 돼지고기             | 125.4 | 128.7   | 129.5   | 0.6         |
| 양고기              | 19.0  | 18.8    | 18.6    | -0.8        |
| <b>세계 육류 교역량</b> | 42.0  | 43.4    | 43.9    | 1.1         |
| 쇠고기              | 13.0  | 13.9    | 13.8    | -0.6        |
| 가금육              | 16.4  | 16.7    | 17.2    | 3.1         |
| 돼지고기             | 9.8   | 10.0    | 10.2    | 1.2         |
| 양고기              | 1.3   | 1.3     | 1.2     | -5.7        |
| <b>수급 지표</b>     |       |         |         |             |
| 1인당 육류 소비량(kg/년) | 46.2  | 46.8    | 46.9    | 0.2         |
| 생산량 대비 교역 비중(%)  | 11.1  | 11.2    | 11.2    | 0.1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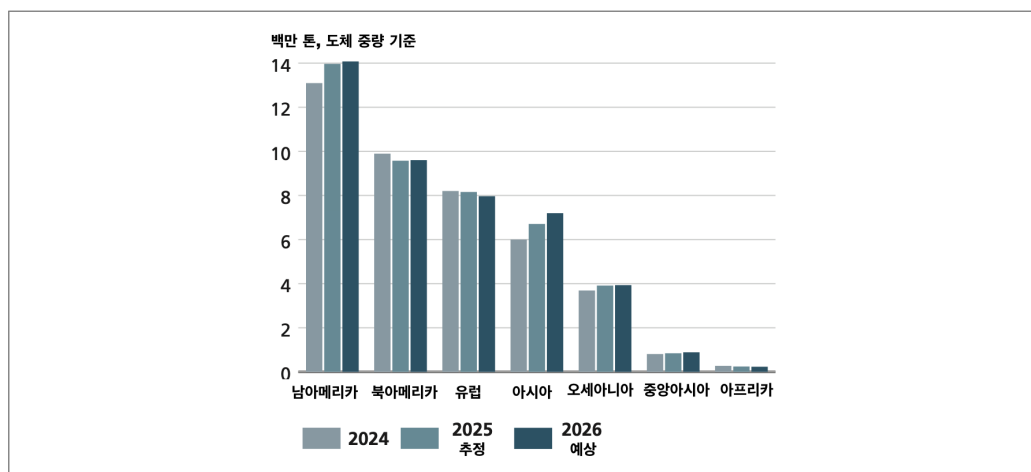
| 구분                            | 2024 | 2025 | 2026년 1월~5월 | 2025년 1월~5월<br>대비 변화율 |
|-------------------------------|------|------|-------------|-----------------------|
| FAO 육류가격지수<br>(2014~2016=100) | 117  | 123  | 128         | 7.4                   |

자료: FAO(2026: 36).

### 1.3. 세계 육류 교역, 품목별 차이 속 완만한 증가 전망

2026년 세계 육류 및 육류제품 교역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390만 톤으로 전망된다(〈그림 5〉 참조). 가금육과 돼지고기 교역량이 각각 3.1%, 1.2% 증가하는 반면, 쇠고기와 양고기 교역량은 각각 0.6%,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육류 교역의 증가는 주로 가금육이 주도할 전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와 같은 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수입 제한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특히 근동 지역은 세계 가금육 수요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분쟁과 물류 차질이 국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의 수요와 높은 쇠고기 가격에 따른 대체수요에 힘입어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쇠고기와 양고기는 주요 수출국의 가축 사육두수 재건으로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지역별 세계 육류 무역



자료: FAO(2026: 37).

## 1.4. 품목별 동향

### 1.4.1. 가금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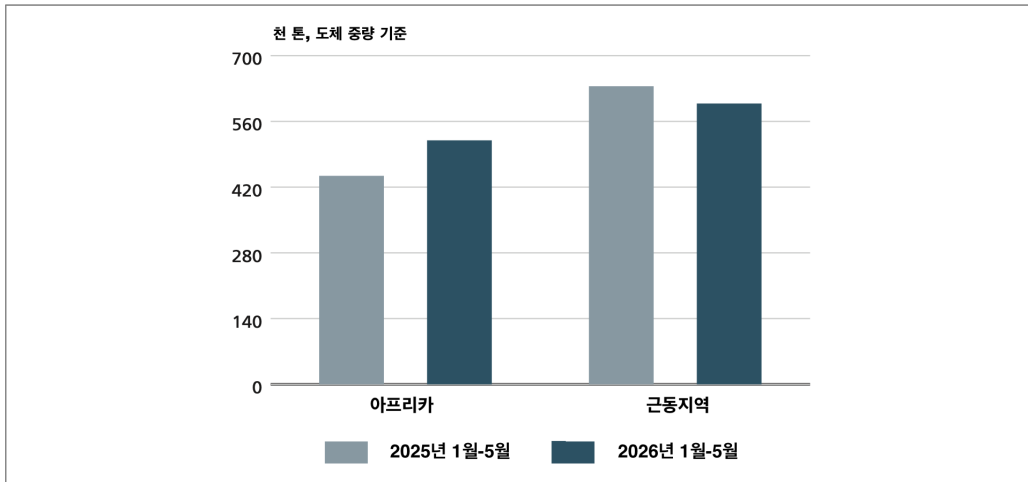
2026년 세계 가금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억 6,030만 톤으로 전망되며, 주요 육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대규모 종계 기반과 가공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가금육 생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브라질, EU 및 미국에서도 국내 소비와 국제 수요에 힘입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HPAI 발생 가능성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 전망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

세계 가금육 교역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20만 톤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충분한 수출 가능 물량과 제품 다양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라질 가금육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근동 지역의 정세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림 6) 참조).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로 기존 해상운송 경로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일부 교역은 홍해를 경유하는 경로와 육상운송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부 수출 물량은 아프리카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콜드체인 인프라 부족과 제한적인 구매력은 추가 물량을 흡수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 증가가 제한적인 아프리카와 소비자 수요가 높은 아시아가 세계 가금육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국내 공급이 충분해 수입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6〉 브라질의 가금류 수출



자료: FAO based on 2007-2026 Zen Innovations AG(2026); FAO(재인용)(2026: 37).

#### 1.4.2. 쇠고기

202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7,690만 톤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중국 및 미국에서는 소 사육두수 재건이 진행되면서 도축 가능한 소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도 규제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구조적 조정이 생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멕시코에서는 2024년 말 이후 신대륙나사파리(New World screwworm) 우려로 미국이 멕시코산 생우 수입을 반복적으로 중단하면서 국내 도축 가능한 소가 증가해 쇠고기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역시 높은 도축 수준과 충분한 소 공급을 바탕으로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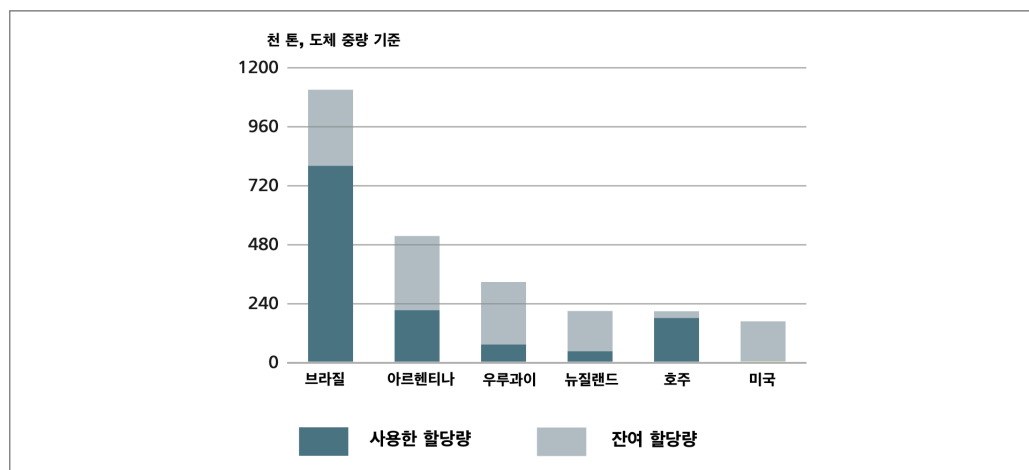
세계 쇠고기 교역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380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2026년 1월부터 3년간 국가별 수입쿼터를 도입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5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할당량 소진 이후 중국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7〉 참조).

반면 국내 쇠고기 공급이 부족한 미국에서는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EU에서도 수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EU에서는 2026년 5월 1일부터 EU-Mercosur 잠정 무역협정이 적용되면서 Mercosur 국가에 9만 9,000톤의 관세율할당

(TRQ)과 7.5%의 특혜관세가 적용되었다. 다만 브라질은 5월 중순 항균제 관련 규정 준수 문제로 승인 수출국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EU로의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수출 측면에서는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와 부진한 국내 소비를 배경으로 수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림 7〉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 할당 적용 현황(2026년 1월~4월 기준)



자료: FAO based on 2007-2026 Zen Innovations AG(2026); FAO(재인용)(2026: 38).

#### 1.4.3. 돼지고기

2026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억 2,950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모든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 배당 자돈 수 증가 등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쇄하면서 생산량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에서는 양호한 수익성과 높은 국제 수요, 미국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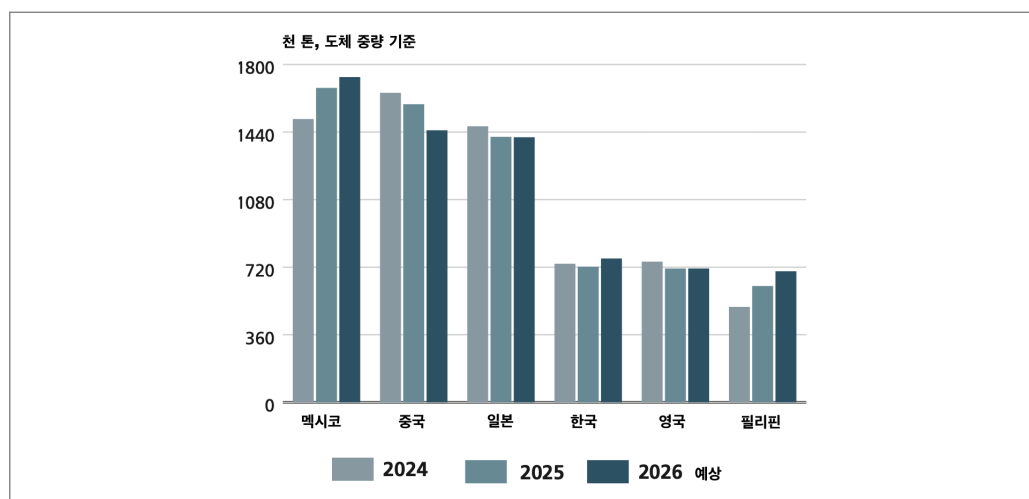
반면 EU의 돼지고기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SF 발생과 이에 따른 무역 제한으로 일부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가운데 중국의 수입 수요 약화도 생산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돼지고기 교역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20만 톤으로 전망된다. 필리핀과 한국에서는 수년간 반복된 ASF 발생으로 국내 도축 가능 물량이 제한되면서 수입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에서도 높은 쇠고기 가격에 따른 돼지고기 대체수요와 국내 소비 증가로 수입이 확대될 전망이다(<그림 8> 참조). 다만 멕시코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돼지고기에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은 충분한 국내 공급과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5년 12월 EU산 돼지고기에 대해 4.9~19.8%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U의 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가운데 충분한 수출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 캐나다 및 미국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주요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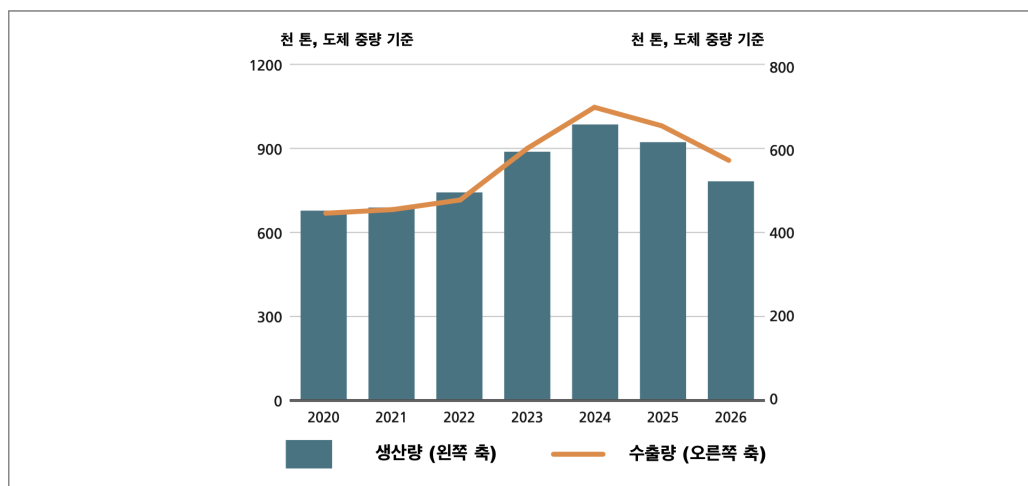
자료: FAO(2026: 39).

#### 1.4.4. 양고기

2026년 세계 양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860만 톤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주는 이전의 높은 도축 수준으로 양떼 규모가 감소하고 이용 가능한 가축 수도 줄어들면서 공급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9> 참조). 중국 역시 과거의 사육두수 감축과 낮은 생산자 수익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EU에서도 구조적인 생산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높은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의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양고기 교역량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120만 톤으로 주요 육류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양고기 수출국인 호주에서는 양떼 재건을 위한 도축 감소와 사육두수 축소로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뉴질랜드의 제한적인 생산 증가 역시 수출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의 국내 소비 부진으로 수입 수요가 약화되면서 세계 양고기 교역 감소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림 9〉 호주의 양고기 생산 및 수출



자료: FAO(2026: 39).

## 2. 우유 및 유제품(Milk and milk products)

### 2.1. 국제 유제품 가격,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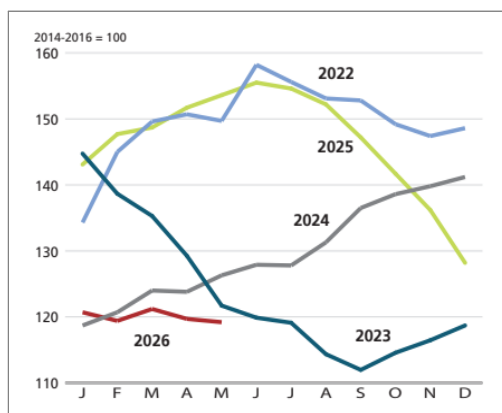
FAO 유제품가격지수(FAO Dairy Price Index)는 2026년 1~5월 평균 120.0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19.4% 하락하였다(〈그림 10〉 참조). 버터, 치즈 및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 WMP)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탈지분유(Skim Milk Powder, SMP)는 주요 유제품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기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11〉 참조).

국제 유제품 가격은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주요 수

출국의 우유 생산이 회복되고 수출 가능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 특히 유지방 공급이 개선되고 유럽과 미국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버터와 치즈 시장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었다. 유청에 대한 높은 수요 역시 치즈 생산을 뒷받침하면서 공급 확대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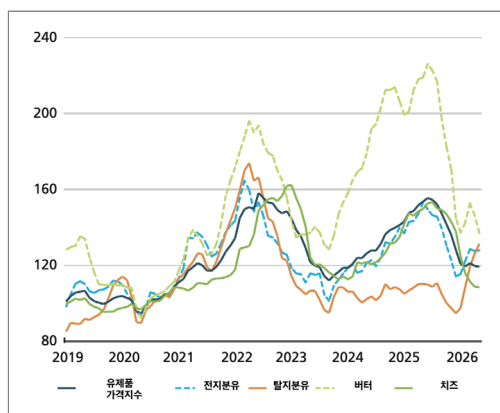
반면 탈지분유 가격은 2025년 하반기의 큰 폭의 가격 하락 이후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바탕으로 근동, 북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시장의 구매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초 국제 유제품 시장에서는 유지방 제품보다 유단백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림 10〉 FAO 월별 유제품 가격지수  
(기준년도: 2014~2016년 평균)



자료: FAO(2026: 41).

〈그림 11〉 FAO 월별 유제품 국제가격지수  
(기준년도: 2014~2016년 평균)



자료: FAO(2026: 41).

## 2.2. 2026년 세계 우유 생산, 증가세 지속되나 속도 둔화

2026년 세계 우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억 1,26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우유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높은 인건비, 에너지 및 사료비와 환경규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생산자의 수익성과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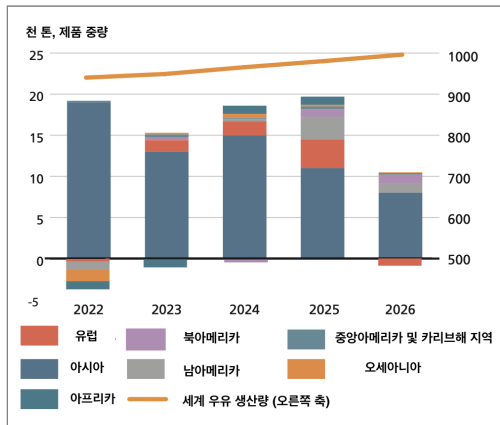
아시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및 튀르키예의 사육두수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생산 증가를 주도하고,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생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규모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최근의 생산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2> 참조). 반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고령화와 높은 생산비 등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도 생산성 향상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규제와 낮은 농가수취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체 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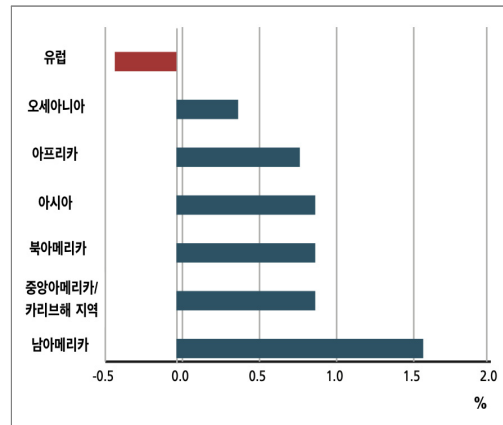
미주에서는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의 생산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호주는 가뭄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기상과 생산 여건의 차이로 국가별 생산 흐름이 상이할 전망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2〉 지역별 세계 우유 생산량 추이



자료: FAO(2026: 42).

〈그림 13〉 지역별 세계 우유 생산량 증감률



자료: FAO(2026: 43).

## 2.3. 세계 유제품 교역, 완만한 증가 전망

2026년 세계 유제품 교역량은 원유 환산 기준 전년 대비 0.9% 증가한 9,21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5년의 2.5% 증가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별 소비자 구매력 차이, 주요 수입국의 국내 생산 및 가공능력 확대 등이 교역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북미, 특히 미국과 남미의 수출 증가가 세계 교역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우유 생산 증가가 제한되면서 수출 확대 여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그림 14〉 참조). 수입은 유럽과 북미, 중남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수입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아시아 전체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치즈 교역이 외식업과 식품가공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주요 유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버터 교역도 증가하겠으나 최근의 높은 증가세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교역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표 2〉 세계 유제품시장 주요 지표

| 구분                          | 2024  | 2025 추정 | 2026 전망     | 2025년 대비 변화        |
|-----------------------------|-------|---------|-------------|--------------------|
| 백만 톤 (원유 환산 기준)             |       |         |             | %                  |
| <b>세계 수급</b>                |       |         |             |                    |
| 세계 우유 생산량                   | 983.7 | 1,003.7 | 1,012.6     | 1.0                |
| 세계 유제품 교역량                  | 88.9  | 91.2    | 92.1        | 0.9                |
| <b>수급 지표</b>                |       |         |             |                    |
| 세계 1인당 소비량(kg/년)            | 120.2 | 121.6   | 121.6       | 0.1                |
| 생산량 대비 교역 비중(%)             | 9.0   | 9.1     | 9.1         | 0.2                |
| 구분                          | 2024  | 2025    | 2026년 1월-5월 | 2025년 1월-5월 대비 변화율 |
| FAO 유제품가격지수 (2014-2016=100) | 129.7 | 146.7   | 120.0       | -19.4              |

자료: FAO(2026: 8).

〈표 3〉 주요 수출국의 유제품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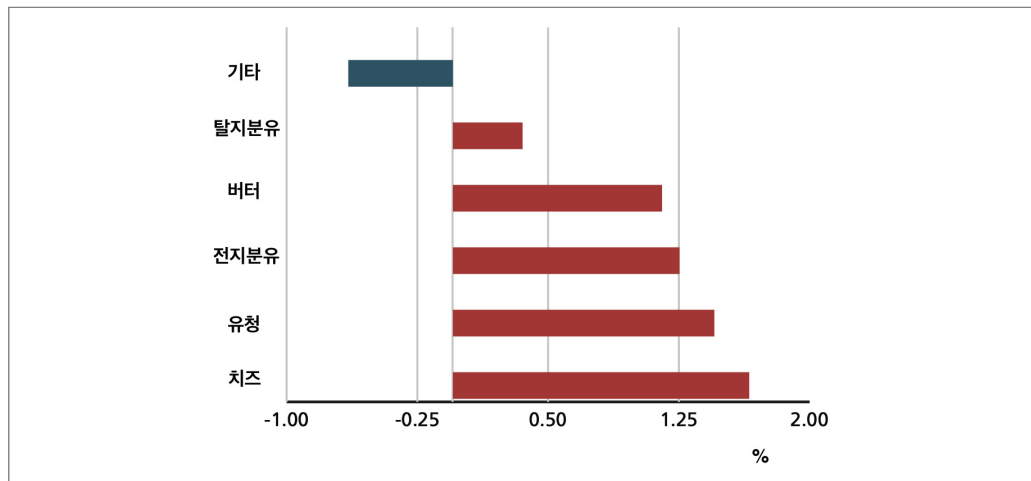
| 품목/국가            | 2022-2024 평균 | 2025 추정 | 2026 전망 | 2025년 대비 변화 |
|------------------|--------------|---------|---------|-------------|
| 천 톤 (원유 환산 기준)   |              |         |         | %           |
| <b>전지분유(WMP)</b> |              |         |         |             |
| 세계               | 20,609       | 20,573  | 20,711  | 0.7         |
| 뉴질랜드             | 10,541       | 10,566  | 10,639  | 0.7         |
| 유럽연합             | 2,449        | 2,036   | 1,941   | -4.7        |
| 우루과이             | 1,208        | 1,193   | 1,232   | 3.2         |
| 아르헨티나            | 1,005        | 1,127   | 1,154   | 2.4         |

(계속)

| 품목/국가            | 2022-2024 평균 | 2025 추정 | 2026 전망 | 2025년 대비 변화 |
|------------------|--------------|---------|---------|-------------|
| <b>탈지분유(SMP)</b> |              |         |         |             |
| 세계               | 19,912       | 20,096  | 20,174  | 0.4         |
| 유럽연합             | 6,021        | 5,131   | 5,143   | 0.2         |
| 미국               | 5,521        | 6,075   | 6,102   | 0.5         |
| 뉴질랜드             | 3,206        | 3,155   | 3,177   | 0.7         |
| 호주               | 1,158        | 1,200   | 1,193   | -0.6        |
| <b>버터</b>        |              |         |         |             |
| 세계               | 7,573        | 8,323   | 8,419   | 1.2         |
| 뉴질랜드             | 3,188        | 3,286   | 3,407   | 3.7         |
| 유럽연합             | 1,799        | 1,786   | 1,791   | 0.3         |
| 미국               | 333          | 813     | 887     | 9.1         |
| 영국               | 314          | 328     | 367     | 12.0        |
| <b>치즈</b>        |              |         |         |             |
| 세계               | 16,280       | 18,253  | 18,591  | 1.9         |
| 유럽연합             | 6,041        | 6,293   | 6,372   | 1.3         |
| 미국               | 2,055        | 2,716   | 3,017   | 11.1        |
| 뉴질랜드             | 1,660        | 1,899   | 1,943   | 2.3         |
| 영국               | 810          | 909     | 935     | 2.9         |
| 호주               | 647          | 755     | 760     | 0.7         |

자료: FAO(2026: 44).

〈그림 14〉 세계 유제품 수출 변화(%)



자료: FAO(2026: 43).

## 2.4. 품목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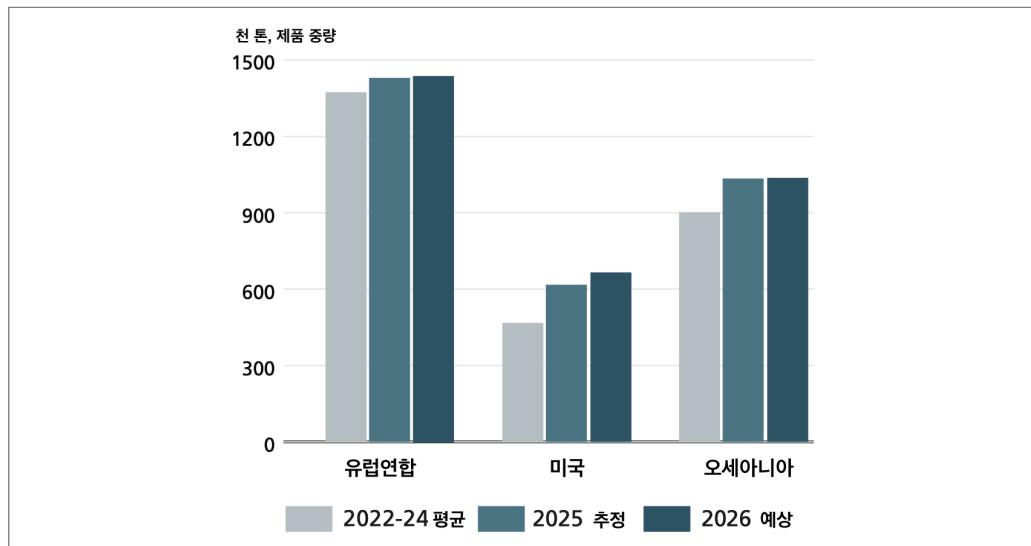
### 2.4.1. 치즈

2026년 세계 치즈 교역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 소매 소비뿐만 아니라 외식업과 식품가공업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요 유제품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교역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이 생산 확대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치즈 교역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치즈 수출지역의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우유 생산 증가가 제한되면서 수출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5〉 참조).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 이라크, 한국, 멕시코 및 필리핀 등의 구매 증가가 세계 치즈 교역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2026년 2월 중국이 일부 EU산 유제품에 추가 관세를 도입하면서 EU와 중국 간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교역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5〉 주요국가별 치즈 수출 추이



자료: FAO(202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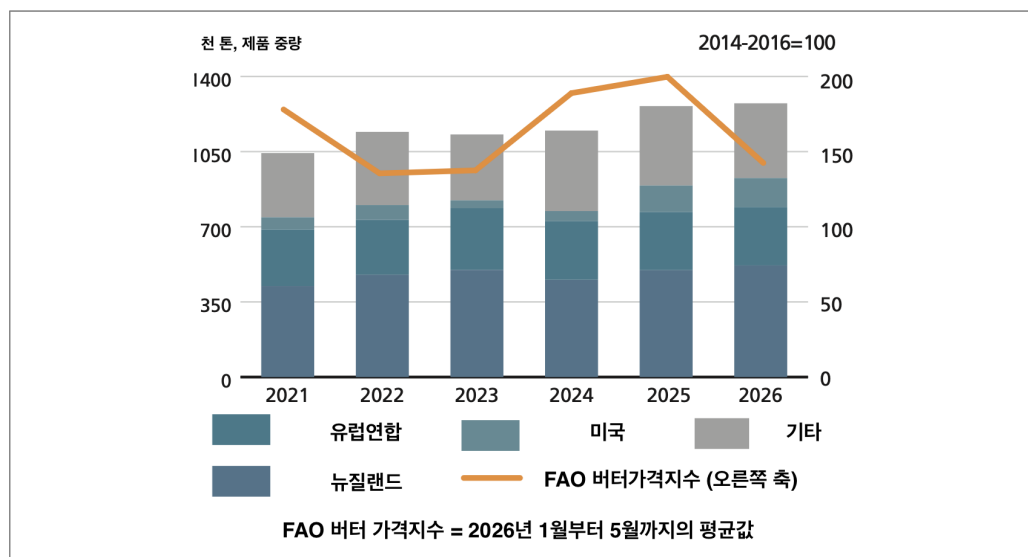
### 2.4.2. 버터

2026년 세계 버터 교역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6〉 참조). EU와 뉴질랜드가 주요 공급지역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도 최근 몇 년간의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세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남미를 중심으로 유지방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 제빵 및 식품제조 부문의 수요가 버터 교역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가 교역 증가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국내 우유 생산과 가공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빵·외식·식품제조 부문의 유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버터 수입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공급 확대에 따라 수입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16〉 전 세계 버터 수출량 및 FAO 버터 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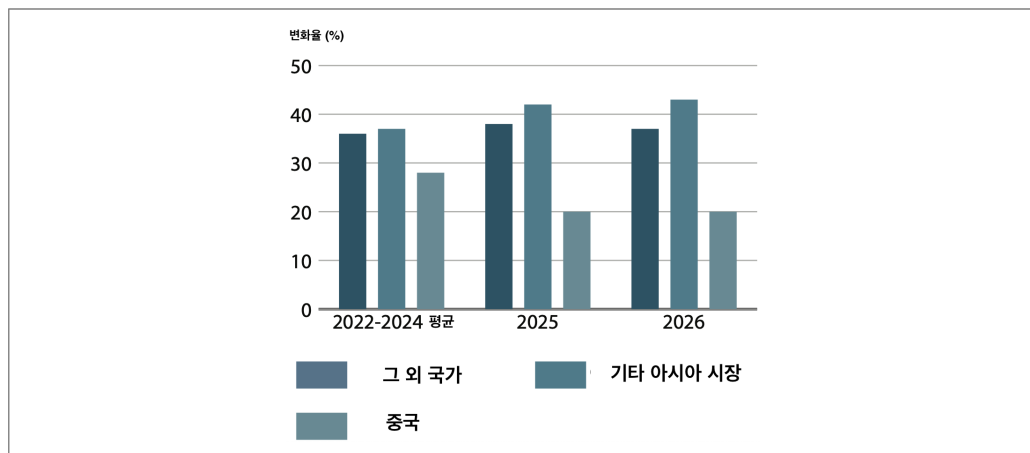
자료: FAO(2026: 45).

### 2.4.3. 전지분유(WMP)

2026년 세계 전지분유 교역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대 공급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칠레 및 우루과이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에서는 원유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유제품 생산에 우선 배분되면서 전지분유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전지분유 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국내 우유 생산과 가공능력이 확대되면서 수입량이 과거 최고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7> 참조).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수요 증가가 중국의 수입 감소를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와 페루 등의 수입 증가도 세계 전지분유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7〉 중국의 전지분류(WMP) 수입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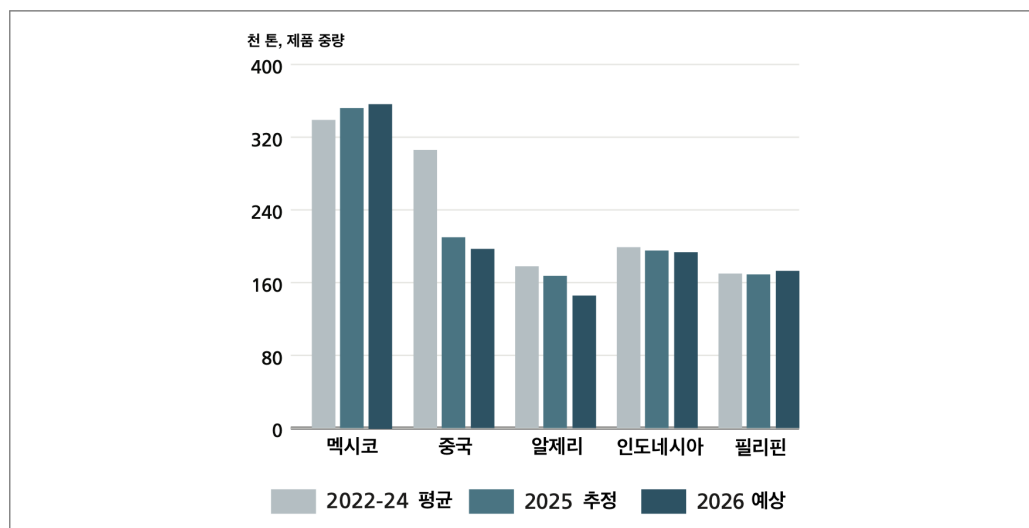
자료: FAO(2026: 44).

### 2.4.4. 탈지분유(SMP)

2026년 세계 탈지분유(SMP) 교역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주요 공급국의 수출 가능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뉴질랜드의 출하 증가가 세계 교역량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탈지분유 수입은 국내 우유 생산 확대와 수입 분유를 이용한 액상유 재구성을 억제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식품가공과 소비 수요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의 수입 수요도 지속될 전망이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주요국가별 탈지분유(SMP) 수입 추이



자료: FAO(2026: 44).

### 3.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세계 육류 및 유제품 시장은 전체적인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품목별 공급 여건과 교역 흐름의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시장에서는 가금육이 생산과 교역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쇠고기와 양고기는 주요 생산국의 사육두수 재건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생산과 교역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다. 유제품 시장에서는 세계 우유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주요 수입국의 국내 생산 및 가공능력 확대 등에 따라 세계 유제품 교역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축 질병, 무역정책, 지정학적 위험과 주요국의 생산구조 변화가 국제가격과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육류시장에서 가금육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금육은 다른 육류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2026년 생산과 교역은 각각 2.5%, 3.1% 증가하여 주요 육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쇠고기와 양고기는 사육두수 재건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쇠고기의 공급 제약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금육과 돼지고기로 소비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육류의 수급 변화가 다른 품목의 수요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가축 질병과 무역정책,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육류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PAI, ASF 및 구제역의 확산은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수입 제한을 통해 국제 교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쇠고기 세이프가드와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주요국의 무역조치도 기존 교역구조와 수출국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동 지역의 분쟁에 따른 물류 차질은 가금육을 비롯한 육류의 운송경로와 수출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 육류시장의 수급을 전망할 때에는 생산과 소비 여건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 통상정책 및 지정학적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 유제품 교역에서는 수출대상 시장의 다변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내 우유 생산과 가공능력을 확대하면서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수입을 줄이는 반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유 수출국은 동남아시아와 일부 중남미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출대상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제품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생산과 교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품목별 수요구조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식업과 식품가공업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치즈와 버터는 상대적으로 교역 증가세가 유지되는 반면,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는 주요 수입국의 국내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로 교역 증가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유제품 시장을 전망할 때에는 세계 우유 생산이나 전체 유제품 교역의 변화와 함께 최종 소비와 식품가공 수요, 주요 수입국의 생산구조 변화 등 품목별 수급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FAO(2026), Food Outlook -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June 202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